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Self-efficacy Scale for College Students

저자 (Authors)	강한아, 김아영 Han A Kang, Ah Young Kim
출처 (Source)	교육심리연구 27(2), 2013.06, 263-283(21 pag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2), 2013.06, 263-283(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교육심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63942
APA Style	강한아, 김아영 (2013).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2), 263-283
이용정보 (Accessed)	전주대학교 202.31.240.*** 2021/01/14 20: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대학생용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강 한 아

김 아 영**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맥락수준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단일구인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을 제작하고, 사전 예비조사, 예비검사, 본검사 실시를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8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문항들은 관계형성과 유지, 의견표현, 권리주장과 도움요청의 네 가지 영역을 다루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척도의 양호도 검증을 위해 예비검사에서는 대학생 316명의 자료를, 본검사는 전국의 대학생 49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검사에서는 문항 분석, 척도의 신뢰도 분석 및 타당도 증거 수집을 위한 상관분석, 요인분석,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검사가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사용가능성과 효과를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척도 타당화

* 이 논문은 강한아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자료에 기초하였음.

** 교신저자, aykim@ewha.ac.kr, 02-3277-2720

I. 서론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77, 1986, 1997)은 영향력이 매우 큰 동기이론의 하나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아영, 2010).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과제수행의 결과가 객관적인 능력 자체보다도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김아영, 2010). 특히나 교육장면에서는 특정 과제 수행의 결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교육적 성과와 관련된 학업적 맥락에서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의 대부분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척도의 개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는 이와 관련된 과제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예를 들어, Owen과 Froman (1988)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이상희(2012)의 수학 자기효능감 척도).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시절에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이수진, 2009), 그러한 변화가 개인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적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학생의 경우 학교라는 제한된 사회적 영역에서 벗어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

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질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석만, 1995).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Gresham, 1984), 이들의 학업적 수행 및 학교생활 적응(Ferrari & Parker, 1992)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최근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팀프로젝트와 같은 협력학습의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는 협력학습이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이 사회적 효능감이 낮아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임지연, 이영호, 최영안, 2004), 대학에서 요구하는 변화된 학습 형태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앞으로 자신의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발달 과업이 주어진 대학생의 진로 미결정과도 연관이 있어(Smith & Betz, 2000), 대학생의 진로 선택의 내용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사회적 상황과 특징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및 발전시키며 목표로 하는 행동을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매우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후속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해외 척도들은 한국 대학생의 문화적 가치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번안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회적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몇몇 척도들은 심리측정학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척도가 다루는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등(1982)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본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요인 분석결과에서 다른 문항들과 묶이지 않는 6개 문항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효능신념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후적으로 6문항을 한데 묶어 척도를 구성하였다(Smith & Betz, 2000). 즉 이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항이 구성되지 않고 통계적 분석 과정에서 남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얻은 척도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Alden, Teschuk과 Tee(1992)가 개발한 척도는 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한 문항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Smith & Betz, 2000). 이러한 측정방식은 한 문항으로 해당 내용이 대표된다고 보기 어

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반면에 Fan과 Mak (1998) 및 Smith와 Betz(2000)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들을 기반으로 하여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문항을 작성하였지만, 파티에서의 사고상황 등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상황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심리측정학적으로 타당하며, 맥락 특수적인(context-specific) 수준에서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척도가 충분한 양호도를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신뢰도, 구인타당도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작된 사회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상담 개입 이후에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나 대인관계 기술 증진 정도를 측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촉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측정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수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맥락에 국한하여 적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알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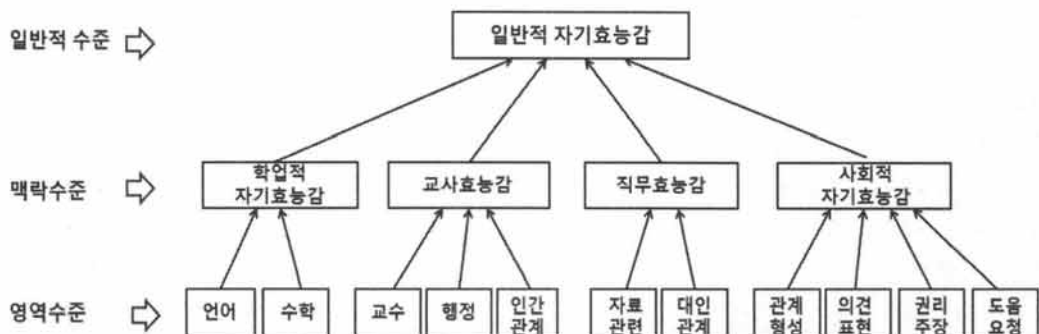
서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Bandura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행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역량(capacity)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특히 그는 자기조절 체계가 인간 행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의 자기조절 과정을 잘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인 자기조절효능감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Bandura, 1986; Bandura, 1993).

일부 연구자들(예를 들어, Kim & Park, 2000)은 자기효능감을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까지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지는 위계적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일반적(general) 수준에서부터 맥락-특수적(context-specific),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 수준의 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계적 구조 속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특수적(context-specific)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Fan과 Mak(1998)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들은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접하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목표로 하는 행동(target behavior)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Smith와 Betz(2000)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과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자신감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Connolly(1989)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과제의 숙달 정도에 대한 개인의 기대라고 하였다(Bandura, 1977; Wheeler & Ladd, 1982). 국내연구자들 중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해 바람직한 인상을 전달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p.630)”이라고 보았다.

한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단일구인으로 상정되어 여러 사회적 상황이 포함되도록 척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다.



(그림 1) 일반적 관점에서 본 자기효능감의 가설적 위계구조(김아영, 2010의 수정 및 확장)

기존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den 등(1992)은 개인의 공적 자기 인식(public self-awareness)이 사회적 상황으로부터의 철회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수검자에게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수검자가 얼마나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지를 10점 양극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 척도는 각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효능기대를 각각 하나의 문항만을 가지고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심리측정학적 한계가 있다.

Fan과 Mak(1998)의 Social Self Efficacy Scale for Students(SSESS)척도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모집단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정제된 척도를 개발하고자 기존의 몇몇 척도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Solberg 등(1994)이 개발한 대학생 자기효능감 도구(College Self-Efficacy Instrument)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 문항과 Sherer 등(1982)이 제작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하위척도 문항을 기반으로 하고, 이민자 학생을 인터뷰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한 문항을 새로이 첨가하였다. 이들은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20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Cronbach의 α 가 .85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한국 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과는 동떨어진 문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Smith와 Betz(2000)의 Perceived Social Self-

Efficacy(PSSE) 척도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을 때 안정적인 심리측정학적 속성을 보인 Connolly(1989)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후기 청소년 및 성인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 척도이다. 이 연구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기존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속성과 내용 범위 상에서 나타난 제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하였다. PSSE 척도의 α 계수는 .94이고 3주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Smith와 Betz(2000)의 척도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문항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 미국 대학생의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한국학생들에게 바로 적용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관련 변인 연구

가.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맥락 수준에 위치한다는 연구결과에서 추론이 가능하다(Kim & Park, 2000). 또한 Eden(1988)에 따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여러 특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맥락 특수적인 사회적 자기효능감 역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나. 사회적 불안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불안과 부적

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olly, 1989; Sherer & Adams, 1983).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eck과 Emery(1985)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공포증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요인이라고 가정하면서, 사회공포증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아 부정적인 평가가 발생할 확률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권은미 등(2009)은 자기효능감은 과정 또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회공포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공포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우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ndura, Pastorelli, Barbaranelli, & Caprara, 1999; McFarlane, Bellissimo, Norman, & Lange, 1994). 또한 Wei, Russell과 Zakalik(2005)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외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삶의 전환기에 놓인 대학교 신입생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우울의 문제를 예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외로움과 이에 따르는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3.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단일 구인으로 하여, 사회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첫째,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조절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제작하였다.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Bandura, 1986, 1989, 1997), 정서 반응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불안 척도와 구분이 되는 척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척도를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자신이 효과적인 자기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사회적 자기조절효능감을 중심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둘째, 척도 문항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영역은 문헌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특징과 기존 척도 문항들을 토대로 규정하였다. 그 동안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단일 구인으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그 내용영역의 명칭은 <표 1>과 같이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는 몇 가지로 중복되었다. 또한 문항들은 수업, 일반 활동 등의 사회적 상황과 상호작용 대상만 바꾸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개인이 관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척도들 중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된 척도들(Fan & Mak, 1998; Smith & Betz, 2000)을 선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달성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공

〈표 1〉 기존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척도	대상	내용영역	공통 사회적 상황
SSESS (Fan & Mak, 1998)	대학생	사회적 어려움의 부재 사회적 자신감 관심사 공유 교우관계 주도	관계형성 및 유지 의견표현
PSSE (Smith & Betz, 2000)	대학생	친구 사귀기 연인관계추구 사회적 적극성 공적인 상황에서의 수행 그룹 또는 파티	관계형성 및 유지 의견표현 도움요청

주. SSESS: Social Self Efficacy Scale for Students

PSSE: Perceived Social Self-Efficacy

통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런 다음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내용영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척도의 내용영역을 구성할 때, 기존 척도에 대한 문헌연구 결과 외에도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집단 토론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사전 예비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진 수차례의 소집단 토론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제공한 후, 제시된 문항이 한국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측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중, 고등학생 시절과 차이를 보이는 대학생의 발달적 과업이외에도 집단활동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언급하였다.

실제 한국사회의 문화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틀 중에 하나는 집합주의(collectivism)로,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에 대한 집단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개인이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중시한다(Kitayama & Markus, 1994). 그러므로 집단과 개인의 욕구가 상충하는 상황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 타인의 요구 및 행동이 상충되는 상황에 지체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권리주장 측면에서의 효능감 역시 중요한 측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상황의 내용영역을 관계형성과 유지, 의견표현, 도움요청, 권리주장으로 범주화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문항제작 절차

척도문항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사회적 맥락수준에서의 자기효능감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문항의 전반에는 자기효능감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측면(Bandura, 1977)을 반영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기도 한다(Bandura, 1993)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사회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를 측정하는 문항들도 포함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여러 하위기술들을 조직화하고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생성적인 능력(generative capability)이라는 측면에서(Bandura, 1997),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대화기술을 활용하여 목표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다루는 질문 역시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사전에 작성된 문항 청사진에 따라,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 상황 범주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척도에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를 통해 양호도가 좋은 문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검사에서 총 21문항을 제작하였으며,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해서 중립범주에 해당하는 반응은 배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역문항을 포함하여 응답자의 묵종경향성을 줄이고, 수검자가 응답을 성실히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한 문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심리측정 전문가 및 해당 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소집단 토론과정을 거쳤다. 이후 척도 문항의 의미전달과 단어 사용, 문법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특정 구인에 대한 문항을 접하였을 때, 연구자가 설정한 조작적 정의와 일치되도록 이해하는 정도인 인지타당도

(Koskey et al, 2010)를 고려하여 제작된 문항의 내용 및 표현상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에게는 각 문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서술하고, 검사문항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단어가 생소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사전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바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문항은 수정하였다.

2. 연구대상

예비검사는 수도권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31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구성은 남학생 159명(50.3%), 여학생 157명(49.7%)으로 비교적 균등하였다. 학년과 전공분포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본 검사는 전국의 대학생 5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21명의 자료를 제외한 49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검사의 성별구성 역시 남학생 243명(49.3%), 여학생 250명(50.7%)으로 비교적 균등하였다. 학년 구성은 1학년 169명(34.3%), 2학년 97명(19.7%), 3학년 101명(20.5%), 4학년 126명(25.6%)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분포는 인문과학 92명(18.7%), 사회과학 177명(35.9%), 자연과학 58명(11.8%), 공학 105명(21.3%), 교육학 12명(2.4%), 예체능 34명(6.9%), 의학 계열 6명(1.2%), 기타 9명(1.8%)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의 학년 및 성별 구성

표본특성	집단구분	빈도(%)	집단구분	빈도(%)
성별	남자	159(50.3)	남자	243(49.3)
	여자	157(49.7)	여자	250(50.7)
학년	1학년	92(29.1)	1학년	169(34.3)
	2학년	87(27.5)	2학년	97(19.7)
	3학년	54(17.1)	3학년	101(20.5)
	4학년	83(26.3)	4학년	126(25.6)
	인문과학	54(17.1)	인문과학	92(18.7)
	사회과학	128(40.5)	사회과학	177(35.9)
	자연과학	35(11.1)	자연과학	58(11.8)
	공학	53(16.8)	공학	105(21.3)
전공	교육학	4(1.3)	교육학	12(2.4)
	예체능	30(9.5)	예체능	34(6.9)
	의약계열	5(1.6)	의약계열	6(1.2)
	기타	7(2.2)	기타	9(1.8)
전체		316(100.0)		493(100.0)

3. 측정도구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준거관련 타당도 및 구인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본검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불안 척도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LaGreca와 Lopez(1998)의 사회적 불안 척도를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구성한 사회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5문항 및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5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간점을 허용하지 않고자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양재원 등(2008)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0 수준이며 하위요인의 경우는 .69~.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불안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사회불안 척도의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합치도(α)는 .92, 하위 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α)는 .77~.90로 나타났다.

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송윤아(2010)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장면에서 보이는

개인의 전반적 수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단일요인으로 상정하였으며, Likert 6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송윤아(2010)의 연구에서 10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α)는 약 .87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보임으로써 척도의 타당도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합치도(α)는 .89로 나타났다.

다. 우울감 척도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이수현(2011)이 단축형 10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는 장점이 있다(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단축형 우울감 척도는 이수현(2011)의 연구에서 .74의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합치도(α)를 보였으며 관련변인들과의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α)는 .83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가. 예비검사 분석

예비검사 분석 시에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항들은 피검사자들의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으로 파악하여 삭제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을 통해 추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과정에서 문항 간 상호 상관의 범위를 확인하고 문항-총점 상관이 .30이하

로 너무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제로 척도 문항들이 설정된 구성개념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적절한 요인 수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단일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한 공통요인 분석을 적용하였다. 공통분의 초기값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지정하였으며,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및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나. 본검사 분석

본검사에 대한 문항분석과 신뢰도분석은 예비검사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정된 구인이 실제로 해당구인에 속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법제정적 연결망(nomological network) 분석을 진행하여 구인타당도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확보하였다.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은 Cronbach와 Meehl(1955)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것으로, Lönnqvist와 Hannula (2000)의 설명에 의하면, (1)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정을 상정, (2) 경험적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 관계를 결정, (3) 측정 결과로 나타난 경험적 관계와 요인들 간에 가정된 관계가 일치하는지 비교, (4)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 결과를 해석하는 4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해당요인과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가 법제정적 연결망 내에 포함되어, 법제정적 연결망 내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가 확인되면 검증하는 측정도구 뿐만 아니라 다른 척도들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불안, 우울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에는 SPSS 18.0, 확인적 요인분석 및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 시에는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예비척도 분석결과

가. 예비척도 문항 분석

예비척도 문항을 분석한 결과, 문항의 평균은 3.99~4.84, 표준편차는 0.78~1.22로 나타났다. 이 중 몇몇 문항은 평균이 높거나 표준편차가 작아 개인차를 변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왜도와 첨도 값을 검토해 보았을 때, 정상성을 크게 벗어나는 문항은 없었다. 한편 21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α) 값은 .91로 높게 나타났다. 척도의 문항-총점 상관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30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였다. 문항 간 상호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대체로 .20~.60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었으나, 2 문항이 다른 문항들과 대체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나. 예비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예비검사 21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퍼센트 기준, 해석 가능성의 방법을 참조하여 요인의 수효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1요인이 전체 공통분산의 79%

정도를 설명하며, 요인1과 2사이에는 고유치의 차이가 0.43으로 그 변화량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요인수를 결정할 때는 누적분산비율이 전체 공통분산의 75~85% 정도가 설명되면 그 다음 추가되는 퍼센트가 아주 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요인을 추가하지 않는다(Gorsuch, 1983; 이순목, 2000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단일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스크리검사 결과와 해

〈표 3〉 예비 척도의 요인패턴 행렬

문항코드	요인1	공통분
관계형성 및 유지1	0.57	0.55
관계형성 및 유지2	0.54	0.40
관계형성 및 유지3	0.45	0.36
관계형성 및 유지4	0.65	0.56
관계형성 및 유지5	0.72	0.70
관계형성 및 유지6	0.54	0.44
의견표현1	0.62	0.52
의견표현2	0.71	0.55
의견표현3	0.66	0.47
의견표현4	0.67	0.62
의견표현5	0.53	0.34
의견표현6	0.74	0.60
권리주장1	0.35	0.37
권리주장2	0.47	0.25
권리주장3	0.30	0.17
권리주장4	0.63	0.50
권리주장5	0.60	0.52
권리주장6	0.50	0.41
도움요청1	0.68	0.49
도움요청2	0.56	0.32
도움요청3	0.74	0.63

석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도 사회적 자기 효능감 척도의 요인 수를 1개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요인부하량의 경우 <표 3>과 같이 2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4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요인부하량 뿐 아니라 내용상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2. 최종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분석 결과

가. 본검사 척도 구성과 문항분석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본검사 척도 문항은 <표 4>와 같다. 문항 선정 시에는 평균이 너무 높거나 낮고, 표준편차가 너무 작아 개인차를 변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문항 간 상관과 문항-총점 간 상관, 그리고 요인부하량 역시

고려하였으며, 각 내용영역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검사 척도 문항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문항에 대한 평균은 3.94~4.24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 역시 적정 수준으로 개인차를 변별하기에 적절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첨도와 왜도를 검토한 결과 정상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항은 없었다. 본검사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는 .21~.58로 대체로 적절한 값을 보였으며, 문항-총점 상관은 .40~.62, 내적합치도(α)는 .80으로 양호한 값을 보였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설정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구조를 지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표 4>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검사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관계형성 및 유지1	쉽게 친해지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라도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다.
관계형성 및 유지2	나는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의견표현1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의견표현2	나만의 대화 기술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권리주장1	나를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로 배려해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권리주장2	모임에서 사람들이 부당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생각을 당당히 밝힐 수 있다.
도움요청1	나만의 대화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도움요청2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 (R)

주. (R)은 역채점 문항을 나타냄

〈표 5〉 본검사 문항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

(N=493)

	A1	A2	B1	B2	C1	C2	D1	D2
A1	1							
A2	.42*	1						
B1	.39*	.46*	1					
B2	.32*	.42*	.58*	1				
C1	.39*	.25*	.30*	.28*	1			
C2	.29*	.32*	.46*	.45*	.30*	1		
D1	.28*	.40*	.34*	.44*	.29*	.33*	1	
D2	.22*	.31*	.30*	.29*	.21*	.28*	.31*	1
M	3.94	4.20	4.02	4.15	3.94	4.14	4.24	4.20
SD	1.19	1.07	1.05	0.97	1.08	1.05	0.97	1.14

Cronbach의 $\alpha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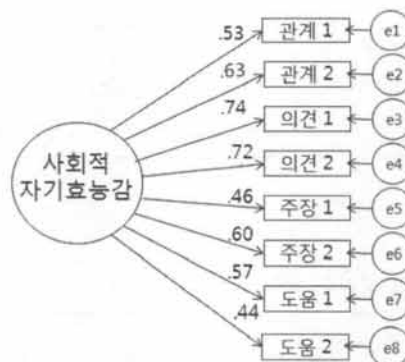
* $p < .05$

주. 관계형성 및 유지(A), 의견표현(B), 권리주장(C), 도움요청(D)

〈표 6〉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493)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low	high
연구모형	71.72	20	.93	.95	.07	.06	.09



〔그림 2〕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주.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이며, 모든 계수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함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1요인 모형을 상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에는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함으로, TLI, CFI, RMSEA와 같은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확인하였다. 측정하는 모델의 적합성을 판정할 때는 RMSEA는 .08이하, CFI와 TLI는 .90이상이 되면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데(Jöreskog & Sörbom, 1993), 단일구인을 상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6>와 같이 TLI=.93, CFI=.95, RMSEA=.07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단일구인 모형에 대한 요인부하량 역시 [그림 2]와 같이 적절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준거관련 타당도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

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불안, 우울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참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도 수준 $p<.05$ 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r = .60$ 의 정적 상관을, 사회적 불안 전체와는 $r = -.60$, 우울감과는 $r = -.31$ 의 부적상관을 보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라.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정적 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전이(spill over)양상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우울감 및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표 7>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N=493)

	사회적 효능감	일반적 효능감	사회적 불안	우울감
사회적 효능감	1			
일반적 효능감	.60*	1		
사회적 불안	-.60*	-.51*	1	
우울감	-.31*	-.48*	.54*	1

* $p<.05$

<표 9>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N=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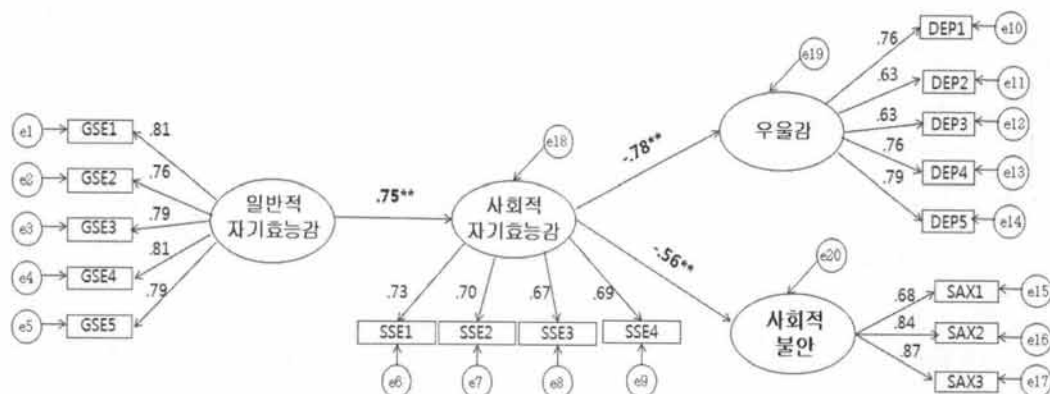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low	high
연구모형	491.90	116	.90	.92	.08	.07	.09

주. ** $p<.01$. 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표 8〉 범제정적 연결망 분석을 위한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 (N=493)

잠재변수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불안					우울감				
측정 변수	GSE1	GSE2	GSE3	GSE4	GSE5	SSE1	SSE2	SSE3	SSE4	SAX1	SAX2	SAX3	DEP1	DEP2	DEP3	DEP4	DEP5			
일반적 자기 효능감	GSE1	1																		
	GSE2	.61*	1																	
	GSE3	.66*	.57*	1																
	GSE4	.66*	.64*	.66*	1															
	GSE5	.66*	.63*	.60*	.61*	1														
사회적 자기 효능감	SSE1	.38*	.39*	.39*	.39*	.45*	1													
	SSE2	.39*	.40*	.44*	.46*	.45*	.52*	1												
	SSE3	.37*	.34*	.39*	.37*	.41*	.50*	.51*	1											
	SSE4	.40*	.41*	.41*	.44*	.39*	.53*	.56*	.47*	1										
	SAX1	-.31*	-.39*	-.33*	-.36*	-.40*	-.38*	-.36*	-.25*	-.33*	1									
사회적 불안	SAX2	-.36*	-.34*	-.33*	-.35*	-.42*	-.53*	-.39*	-.55*	-.38*	.57*	1								
	SAX3	-.40*	-.39*	-.37*	-.45*	-.44*	-.53*	-.38*	-.48*	-.44*	.60*	.73*	1							
	DEP1	-.37*	-.40*	-.42*	-.46*	-.38*	-.34*	-.28*	-.21*	-.32*	.46*	.34*	.45*	1						
우울감	DEP2	-.16*	-.22*	-.22*	-.22*	-.25*	-.13*	-.13*	-.05	-.12*	.38*	.27*	.31*	.41*	1					
	DEP3	-.15*	-.20*	-.19*	-.22*	-.20*	-.14*	-.14*	-.13*	-.16*	.38*	.31*	.38*	.46*	.56*	1				
	DEP4	-.37*	-.41*	-.44*	-.43*	-.43*	-.22*	-.26*	-.23*	-.25*	.42*	.34*	.32*	.59*	.44*	.45*	1			
	DEP5	-.38*	-.39*	-.44*	-.40*	-.37*	-.25*	-.25*	-.19*	-.25*	.40*	.35*	.35*	.59*	.52*	.46*	.60*	1		
	M	4.18	4.15	4.18	4.35	4.11	4.11	4.05	4.07	4.19	2.88	3.37	2.67	2.30	3.31	2.90	2.73	2.57		
SD	0.80	0.76	0.79	0.74	0.78	0.88	0.82	0.95	0.82	0.93	0.88	0.85	0.84	1.10	1.08	0.96	0.91			

* $p < .05$



[그림 3]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 모형 결과

주. 제시된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 ** 표시한 계수를 포함한 모든 계수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

모형을 상정하였다(Chen, Gully, & Eden, 2001). 해당모형의 경우, 한 척도 당 포함된 문항 수가 많아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Bandalos, 2002), 너무 많은 모수를 추정해야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문항결합(item parceling)을 하였다(Bagozzi & Edwards, 1998). 즉 각 잠재변수가 1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구인에 속하는 문항들을 요인부하량 크기별로 순서를 매겨 큰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과 작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을 결합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사회적 불안은 각 하위구인별 합산 점수를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결합으로 생성된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변수들 간 이론적 관계를 고려하여 상정된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9>와 같이 TLI .90, CFI .92, RMSEA .08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각 경로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그림 3]과 같이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맥락수준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beta = .75$)을 미치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우울감($\beta = -.78$)과 사회적 불안($\beta = -.56$)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논 의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간편 척도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해당 맥락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함에 있어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거쳐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관계되는 사회적 상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제작된 문항에 대해 사전 예비조사, 소집

단 토론, 예비검사 실시 및 분석과정을 거쳐 21문항으로 구성된 본검사를 타당도 증거 수집을 위해 선정한 관련변수들과 함께 전국의 대학생 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항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척도의 내용상의 적절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8문항을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본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구성요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조절효능감의 단일구인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예비검사에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모두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단일구인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1요인으로 본 Smith와 Betz(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 8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α)는 .80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총점 상관 역시 모든 문항에서 .40이 넘는 양호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각 문항이 해당 구인을 일관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 결과를 통해 척도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들이 사회적 자기효능감 구인에 높게 부하되었으며, 법제정적 연결망 분석에서도 상정된 모형이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관련 변수들과의 이론적 관계를 토대로 설정된 모형에

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높은 정적상관($r = .60$)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과제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 특수 자기효능감과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련이 된다는 Eden(198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사회적 불안과 높은 부적 상관($r = -.60$)을 보여,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onnolly, 1989; Sherer & Adams, 198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우울감과 부적 상관($r = -.31$)을 보임으로 선행연구 결과(McFarlane, Bellisimo, Norman, & Lange, 1994)를 지지한다. 특히 우울과 불안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Caprara와 Steca(2005)의 연구는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증가된 친사회적 행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생을 위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해서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 척도를 일반인이나 중, 고등학생의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데까지 일반

화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나 또래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중, 고등학생에게도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변인인 만큼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도록 문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척도의 사용대상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실시하여도 안정적으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성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맥락의 자기효능감에 비해 주목을 적게 받아 왔던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제한점과 동일한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측면을 대상과 장소를 바꾸어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내적합치도(α)를 높이려는 측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 척도문항들을 종합하고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요구되는 일반적 상황을 도출하여 간편 척도를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내적 합치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단체생활에서 타인과의 융화를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문항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라 문항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문항을 작성하여, 자기효능감의 여러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회적 자기효능

감 척도가 심리적 문제의 개선이나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효과 평가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차경호, 2004; Caprara & Steca, 2005),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낮아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을 회피하게 되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여러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입할 시에,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대학수준에서의 학생복지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적응문제를 돕기 위한 학교수준의 복지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파악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권은미 · 신민섭 ·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송윤아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재원 · 양윤란 ·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 이상희 (2012). 청소년의 수학(Mathematics)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573-594.
- 이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 이수현 (2011).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임지연 · 이영호 · 최영안 (2004). 역기능적 신념 및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595-609.
- 전경구 · 최상진 ·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Alden, L. E., Teschuk, M., & Tee, K. (1992). Public self-awareness and withdrawal from social interac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3), 249-267.
- Bagozzi, R. P., & Edwards, J. R. (1998). A general approach for representing construc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45-87.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9), 1175-1184.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 Y.: Freeman.
- Bandura, A., Pastorelli, C., Barbaranelli, C., & Caprara, G. V. (1999). Self efficacy pathways to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58-269.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Caprara, G. V., & Steca, P. (2005).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rosocial behavior conducive to life satisfaction across ag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2), 191-217.
-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Connolly, J. (1989). Social self-efficacy in adolescence: Relations with self concept, soci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3), 258-269.
- Cronbach, L. J., & Meehl, P. E. (1955).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s. *Psychological Bulletin*, 52(4), 281-302.
- Eden, D. (1988). Pygmalion, goal setting, and expectancy: Compatible ways to raise produc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4), 639-652.
- Fan, C., & Mak, A. S. (1998). Measuring social

- self-efficacy in a culturally diverse student popula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6(2), 131-144.
- Ferrari, J. R., & Parker, J. T. (1992). High school achievement,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freshman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71(2), 515-518.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resham, F. M. (1984). Social skills and self-efficacy for exceptional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51(3), 253-261.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Hillsdale, NJ: Erlbaum.
- Kim, A., & Park, I. (2000). Hierarchical structure of self-efficacy in terms of generality levels and its relationships to academic performance: general, academic, domain-specific, and subject-specific self-effica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Orleans, Louisiana, April.
- Kitayama, S., & Markus, H. R. (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skey, K. L. K., Karabenick, S. A., Woolley, M. E., Bonney, C. R., & Dever, B. V. (2010). Cognitive validity of students' self-reports of classroom mastery goal structure: What students are thinking and why it matter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 254-263.
- La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önnqvist, A., & Hannula, M. (2000). Validating performance measures with the nomological network. 2nd Conference on New Directions in Management Accounting: Innovations in Practice and Research, Brussels, December.
- McFarlane, A. H., Bellissimo, A., Norman, G. R., & Lange, P. (1994). Adolescent depression in a school-based community sample: Preliminary findings on contributing soc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01-620.
- Owen, S. V., & Froman, R. D. (1988). Development of a Colleg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New Orleans, LA.
- Sherer, M., & Adams, C. H. (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899-902.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mith, H. M., & Betz, N. E. (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of perceived social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8(3), 283-301.
- Solberg, V. S., Good, G. E., Nord, D., Holm, C., Hohner, R., Zima, N., Heffernan, M., & Malen, A. (1994). Assessing career search expectation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 111-123.
-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795-805.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Self-efficacy Scale for College Students

Hana Kang · Ahyo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validate a social self-efficacy scale for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self-efficacy theory of Bandura and reviews of previous studies, items were developed specifically to incorporate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 the process, a pilot test was conducted to check for cognitive validity and to accommodate Korean students' experiences in their social life. Following the pilot test, a 21-item preliminary test was administered to 320 college students. The item analysis resulted in an 8-item, unidimensional scale of social self-efficacy. Responses from 493 college students on the final version of the scale along with the external variables were analyzed to collect reliability and validity evidence. Cronbach's alpha for the final 8 items was .80, suggesting that the scale had adequately high internal consistency. In addition, the result of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rovided evidence for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The correlations among external variables such as general self-efficacy,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provided additional evidence of the validity of the scale. Lastly, a test of nomological network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vealed the structural model that was posited to represent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elf-efficacy and relevant external variables also supported the criterion-related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social self-efficacy scale for Korean college students.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cale in educational and clinical settings is discussed.

Key words : soci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scale validation

투고일자: 2013. 04. 19.

심사일자: 2013. 05. 01.

게재확정일자: 2013. 06. 17.